

# 지반붕괴 사고 주변 제외 “금남지하상가 안전”

## 광주시 정밀진단 결과

지난 5월19일 지반붕괴사고가 발생한 금남지하상가는 지반붕괴 주변을 제외하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8일 “옛 전남도청 주변에 건설되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과 인접한 금남지하상가의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중간 분석 결과, 사용금지구역인 붕괴현장 주변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붕괴사고 직후 사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긴급 착수해 1단계로 2차붕괴 방지를

위한 현장 보강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하상가 내부 붕괴사고 주변을 사용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차단막을 설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은 지난달 21일 착수돼 진행중이며, 오는 9월8일 완료할 예정이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보상주체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금남지하상가 2공구는 문화전당 주차장 공사를 위한 굴착작업이 이뤄진 곳과 경계면으로 상가 3곳과 지하주차장 차량 55대 고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하자” 시민법인 한국음식업 중앙회 광주시지회(지회장·김호대)는 8일 광주시 서구 상무동 지회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 등을 촉구하는 ‘2010 음식문화개선 범국민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에어컨 실외기 熱받게 하네”

## 음식점 등 규정 안지킨 채 부착... 민원 급증

“점통 더위에 짜증나는데, 더 열(熱) 받게 하네.”

회사원 이모(33·광주 남구 노대동)씨는 요즘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 앞에 길게 늘어선 차킨·곱창·삼겹살집 때문이다.

이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근 식당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

는 1주일새 냉방기기 실외기와 관련된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소음으로 잠을 설치겠다는 내용은 물론 열기로 인한 피해, 도시 미관 저해 등 각각양각씩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상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변 건물 벽면

데다 관리·정비할 상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에 의존·처리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 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상 에어컨 실외기는 지면(도로면) 2m 위에 두거나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지난 2005년 일제정비를 통해 현행과약과 계도활동만 했을 뿐 위반 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200만원 이하)은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에어컨 실외기 등 생활 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평소보다 2배 정도로 늘고 있다”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극적인 대처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시민들 “더운바람·소음·냄새에 죽을 맛”

### 구청, 위반 업소 단속 않고 계도활동 만

는 뜨거운 열기로 더위도 참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며 “고기 굽는 냄새에다 열기와 소음에 매일 죽을 맛”이라고 호소했다.

무더위 속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바람과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일 광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돈 지

에 다다라다 불은 실외기에서 방새도록 들리는 소리로 두통이 생길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에 사는 이모(여·34)씨는 인근 할인점에서 들려오는 대형 냉장고 실외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씨는 “24시간 가동되는 냉장고 소음은 물론이고 인도를 향해 내뿜는 40도가 넘는 더운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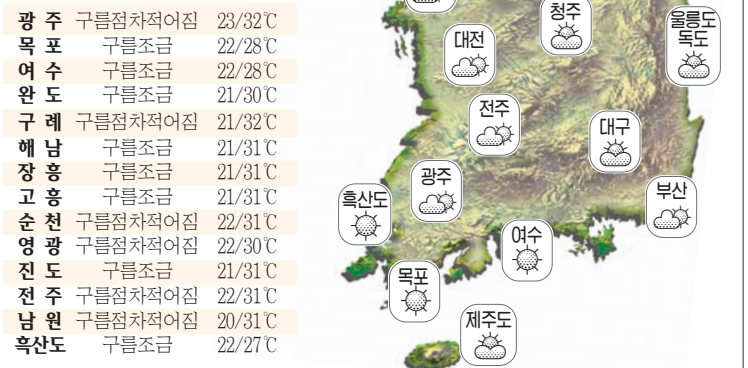
하지만, 실외기 수가 워낙 많은

##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5분 해질 19시 50분 달돋이 02시 24분 달질 17시 29분

### 새벽 안개 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아차이름	23/32℃
목포	구름조금	22/28℃
여수	구름조금	22/28℃
완도	구름조금	21/30℃
구례	구름많아차이름	21/32℃
예남	구름조금	21/31℃
장흥	구름조금	21/31℃
고흥	구름조금	21/31℃
순천	구름많아차이름	22/31℃
영광	구름많아차이름	22/30℃
진도	구름조금	21/31℃
전주	구름많아차이름	22/31℃
남원	구름많아차이름	20/31℃
목포	구름조금	22/27℃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1.5m	☀	☠	☹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포	11:40 05:33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여수	--:-- 17:1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06:44 00:5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19:37 12:5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9	23/28	23/29	23/30	23/29	24/28

## 주말·휴일 천둥·번개...국지성 호우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주말 밤부터 내리는 비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10일 제주도 남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1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8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일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나 밤에 남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11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10일 강수량은 5~15mm에 그치겠으나 11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과 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무더위는 일시적으로 해소되겠다.

12일 새벽에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약해져 비가 그치겠으며, 15일경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수학여행 ‘뒷돈’ 교장 138명 적발

각급 학교 교장들이 학교 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계약하는 대가로 업체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

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38명을 적발, 서울 강남구 S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뢰액수가 적은 102명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장은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수학여행과 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이씨 등 관광버스·숙박 업체 대표에게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2897만원까지 권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법처리 보름만에 끝낸다

### 전자약식재판 도입

다음 주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된다.

8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당사자가 사건처리 결과나 결

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받고 인터넷(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던 약식재판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모두 온라인화하는 것이다.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전자약식재판 덕분에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대 박자영 외 4명 ‘투게더 광주’ 최우수상

### 도시관문디자인 공모

광주시는 8일 “도시관문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심사결과, 광주대 박자영 외 4명이 공동 제출한 ‘Together Gwangju(투게더 광주)’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57점이 접수됐으며, 최우수작은 역 광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차도화하는 등 광문

을 교통과 연계해 공간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명소를 탈바꿈시키자는 내용으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또 우수작 3점은 ▲건축가 장우진 씨(서울)가 제출한 ‘빛고을 광주 - 평화의 빛’ ▲건축디자인어 안호영씨의 2인이 제출한 ‘빛속으로’ ▲홍익대 박현태씨가 제출한 ‘Grow up(자라다)’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복장터

0621576-8600

한불화장품 코랑스사업부에서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을 모집합니다.

LIERAC